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저출생 문제 대응 나섰다

## 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 발표

올해 전북형 무상보육 실현 이어 무료주택 추진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총 1089억 투입

전북자치도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미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전북형 맞춤형 대책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김관영 지사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결혼도, 자녀라는 기쁨도 포기하거나 미뤄두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응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청년은 희망을 피우고, 아이는 함께 키워 행복을 이어주는 전북 실현을 목표로 저출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조사와 기업, 청년, 어린 자녀 양육 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저출생 대책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취업·결혼은 가법계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개 분야 71개 사업에 해당하며, 총 1,08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업·결혼은 가법계' 분야에는 총 21개 사업(사업비 544억 원)이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반할 주

택' 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반할 주택은 임대료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자녀 출산시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는 방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전북자치도의 시도다.

아울러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고, 민간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식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을 추진한다. 투자유치 기업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채용하면 고용보조금을 기존보다 1.5 배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난임 부부부터 산후 건강까지 청년 부모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출생은 건강하게' 분야에는 15개 사업이 포함되며, 총 206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소독과 나이에 상관없이 난임 부부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 난임 및 한방 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예비부모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소상공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임신·출산을 위한 필수 의료체계 구축과 산후조리 등 산후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안전하게 함께 육아를 지원하는 데 21개 사업에 333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세에 있으나 실제 육아휴직 사용자

는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전국 최초로 부모의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으로 전북만의 무상보육을 실현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아빠와 함께 돌봄 프로젝트와 프렌디스쿨 등 아빠들의 좌충우돌 육아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가사와 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에 힘과 힐링을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형 SOS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연령별 맞춤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마트 영유아 119 구급서비스와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구축해 아픈 아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이가 많을수록 대접받고 아이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전북자치도는 물론, 도내 시군 전체가 함께 다자녀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친화적인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가족친화문화 확산' 분야에 총 14개 사업·6억 원을 배치해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을 공공 부문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이 숲선수범해 순자녀 돌봄 시간, 난임치료 및 임신검진 배우자 동행휴가 도입 등 출산과 양육 가정을 배려하며, 민간 기업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초등학교를 둔 근로자의 단속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다.

김관영 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전북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마음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출산·육아 가정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배려, NO 키즈가 아닌 YES 키즈 문화확산에 도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1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형 저출생 대책 수립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새만금 토지임대·공공시설 건축 길 열려

'새만금사업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 스마트 수변도시 토지공급 전략 적용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 공사 설립 당시부터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이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투자유치와 연계된 토지공급 방식 결정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유사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이미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을 각 기관의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에게도 동일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개정 내용을 포함한



새만금개발공사 전경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5일 대표발의하면서 나경균 사장의 관심과 손잡은 쾌거다.

이원택 의원을 필두로 새만금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이라는 점에 국회 여야가 뜻을 모아, 9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이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속도감 있게 법안 개정을 이끌어 내게 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향후 개발사업에 다양한 토지공급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의료시설 등 도시 주요기능을 담당하거나 관광시설 등 집적효과를 유발하는 핵심시설 유치에 토지의 임대 전략을 적용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초기 입주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필요 시 공공지원 시설을 직접 건축하여 안정적으로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창립 6년 만에 타 개발 전담 공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업역을 완성했다"며, "새만금의 광활한 토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새만금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관장 이민숙)은 오는 29일과 12월 1일,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아리 FBI(Farm Business Industry)와 협력해 특별 프로그램 '힐링체험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업, 환경, 과학을 주제로 6~8세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큰 관심을 끌고

## '힐링이 필요해? 어린이창의체험관으로'

29일·내달 1일 전북대와 '힐링체험의 날' 운영

있다.

어린이들은 '꽃이 피었습니다', '뚝딱딱딱 나의 집 만들기', '어푸어푸 바닷속 탐험대!', '뽕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4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꽃이 피었습니다

다'는 식용 꽃을 이용한 꼬치와 피자, 알파와 만들기 체험으로 꽃에 대한 이해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뚝딱딱딱 나의 집 만들기'에서는 목재를 활용해 문패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파자로 오두막을 재현하는 창

의적인 활동이 진행된다.

'어푸어푸 바닷속 탐험대!'는 수생 생물 모양의 키링과 푸딩을 직접 만들어보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뽕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에서는 곡물 가면 만들기, 찰싹떡 만들기를 통해 곡물 활용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힐링체험의 날은 올해 전북대 농생명대 동아리와 협업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며, 상반기에는 4회, 98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강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 내 집 마련의 꿈,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 익산에선 부담 Zero!

익산시 부담제로 프로젝트와 함께해요!

문의 : 익산시청 콜센터 1577-0072 주택과 : (063) 859-5558